

국제관광박람회 수상 잇따라

전남도, 최우수 부스운영·특별상
거리두기·소독 등 방역관리 철저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공로 인정
11월 국내여행 할인상품도 준비

전남도가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와 제23회 부산국제관광박람회에 잇따라 참가해 가을 관광지 홍보로 최우수 부스 운영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지난 19일까지 열린 제23회 부산국제관광박람회에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전남관광지원 홍보와 거리두기 관람, 부스 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부스를 운영해 최우수 부스 운영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부산지역의 전남상품 운영 여행

사인대륙항공여행사, 경희관광여행사 등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남 관광상품 운영방안 등에 대해 홍보마케팅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전남도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스마트관광 산업대전 콘퍼런스가 열려 관광통계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정책 및 관광 혁신 서비스 창출, 스마트관광시대 온라인여행사(OTA) 플랫폼 창업사례 등 다양한 스마트관광 흐름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는 앞으로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국내여행 조기에 예약 할인상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오는 11월 이후 운영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월 원화한 전남 여행상품 인센티브 지원 조건과 관련 서류 대폭 축소, 지원액 상향 등의 내용을 관련 여행사에 안내해 전남 여행산업에 활성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여행사 지원액을 4인 이상 8인 이하 10만 원, 8인 이상 14인 이하 20만 원이었던 것을 15인 이상 30만 원에서 4인 이상 14인 이하 25만 원, 15인 이상 30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신청서류도 기존 이용확인서 등 5개 종류에서 영수증만 제출토록 간소화했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추석 연휴에도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지킨 도민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정정 전남에서 안심하고 여행하도록 더욱 철저한 방역 활동을 펼치면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강진 무위사 수륙대재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5일 오전 강진군 성전면 무위사에서 열린 수륙대재에서 삼귀의를 하고 있다. 수륙대재는 물과 육지를 해매는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한 불교 의식이다. /전남도 제공

전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 성과 톡톡

횡단보도 전방신호등 설치 등
시행 전보다 27.4% 감소

전남도가 2018년부터 시행한 보행자 맞춤형 교통안전정책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이는데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81명으로, 시책 시행 전인 2017년 387명과 비교하면 3년간 106명(27.4%)이 감소했다. 올 들어서도 8월 말까지 175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 152명보다 23명(13%)이 줄었다.

전남의 고령자 등 교통약자는 68만여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한다.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고, 농어촌도로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그동안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다.

사망자 감소는 전남도가 중점 추진한 ‘사람이 먼저’라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30%가 보행 중에 발생한 점에 주목,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안전 대책을 우선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시야 확보가 어려운 69개 횡단보도에 22억7,000만 원을 들여 전방신호등을 설치했으며, 2022년에도 19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보행자의 주의력을 높이기 위해 바닥형 신호, 음성안내 등 보조장치를 겸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91개소에 33억 7,000만 원을 들여 설치했다. 야간 운

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는 안전조명도 지난해 229개소에 이어 올해 216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 첫 시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9억 원을 들여 79개소에 설치했다. 횡단보도 선을 따라 LED 조명이 비쳐 야간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의 올해 교통안전 예산은 2018년 151억 원보다 3.2배 늘어난 481억 원으로 대부분 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과 안전 강화 비용이다.

고재영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도정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무엇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 중요하다”며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 시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도, ‘사회적경제 UCC’ 공모전

내달 15일까지 접수

전남도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해 ‘2021 전남도 사회적경제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UCC 공모전은 만 13세부터 18세 청소년과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참여 희망자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자유로운 내용의 3분 이내 동영상 제작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이메일(jnssc@naver

.com)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전남 사회적경제 홍보에 활용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진행할 ‘전남도 사회적경제 한마당’에서 이뤄진다. 상장과 최대 50만 원의 상금을 부여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누리집(http://jn-se.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1-276-1336)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이윤뿐만 아니라 고용, 복지,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 이를 통해 기존 경제시스템의 독점, 불평등, 환

경 파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양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기업 성장에 비해 도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동영상상이 정보 전달을 위한 매체로 보편화된 가운데 청소년과 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청년을 대상으로 펼쳐져 도민의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장정희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자라나는 청소년과 경제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전이 도내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에 큰 도움이 되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중흥S-클래스

중흥그룹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 중흥이 짓습니다

주거명품 중흥S-클래스를 통해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해온 중흥그룹!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큰 목표는 바로 고객의 행복을 짓는 것입니다

• 2020 건설업력증진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 2019 헤럴드경제 ‘살고싶은집’ 수상복합부문 대상 •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전국 주요 사업실적

인천 선부동 중흥S-클래스

울산 신동 중흥S-클래스

서울 천호동 중흥S-클래스

세종시 H9 중흥S-클래스

광주 신동 중흥S-클래스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시,식재료 업체 등 234곳 대상

광주시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을학기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와 광주시약청, 시교육청,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6개반 22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오는 2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유치원과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23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식재료 공급·보관·조리·배식 등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등의 세척·소독 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조리장 방충·방서 시설관리 ▲식품유수관리 등이다.

특히, 학교급식 대체식이나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 환경검체 및 비가열식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

이다.

이와 함께 학교 영양사와 조리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하고, 세균오염도측정기(ATP)를활용해급식소 조리실의 칼, 도마, 행주 등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도 함께 한다.

성유석 시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급식소 조리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해 식중독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광주시, 장애인정책 모니터링단 모집

권익·안전 등 4개 분야 5명

광주시는 2021년 장애인정책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 ‘장애인이 행복한 주체적이고 동등한 삶’을 비전으로 5대 전략, 15개 중점과제, 43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광주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9~2022)’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장애인정책 추진사항 점검을 위해 공모를 통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다

음달부터 11월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현장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연속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 이미 구성된 15명의 모니터링단에 4개 분야(권익·안전, 교육·문화·체육, 사회참여, 복지건강), 5명을 추가 모집한다.

모니터링단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0월8일까지로, 시 홈페이지 및 장애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27일 올라올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모니터링단은 시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

담당자 인터뷰, 장애당사자와 부모의 의견취취 등을 통해 시 자체평가에 대한 점검과 정책과제의 현장 실행 및 반영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현장실사에 앞서 다음달 14일에는 분과별 위원과 모니터링단이 함께 사전워크숍을 진행해 분과별 모니터링 일정 및 진행방범, 과제별 특성에 따른 기술방법 등 평가세부기준 등을 논의한다.

오는 12월에는 시 주관부서별 자체평가(정량평가)와 모니터링(정성평가)를 토대로 2021년 평가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향후 2022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남도의 맛’ 전 세계에 알린다

도, 요리교실 유튜브 송출

전남도는 오는 10월 15일부터 3일간 온·오프라인으로 펼쳐질 제27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앞두고 첫 온라인 프로그램인 ‘남도요리교실’을 운영, 오는 10월 15일부터 유튜브로 송출한다.

‘남도요리교실’은 ‘남도의 맛!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와 어울리도록 김영록 전

남지사와 전남도 홍보대사인 배우 김수미가 영광출신 최윤자 남도음식명인에게 굴비찜과 조기탕의 요리비법을 배우는 모습을 담았다.

굴비와 조기 요리비법과 찜조기와 부세 구별법, 남도음식이 맛있는 이유 등을 소개한다. 이 영상은 유튜브 남도음식문화큰잔치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2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며 “영상을 통해 남도음식의 맛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축제를 국제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올해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안전한 행사를 치러질 예정이다. 시군대표 음식과 명인 요리비법, 화려한 색감의 남도음식 전시, 남도장터와 연계한 방송 판매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길용현 기자